

동북지방 태평양 연안 지진 피해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이번 동북지방 태평양 연안 지진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종업원 일동 삼가 애도를 표합니다.

주식회사 마루한(본사 : 교토·도쿄 대표이사회장 한창우·대표이사사장 한유)는 2011년 3월 11일 (금)에 발생한 동북지방 태평양 연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의연금으로 당사에서 5억엔, 종업원 모금 3,000만엔, 음료수와 식료품 등의 물자 지원 및 자원봉사 등 인적 지원의 실행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당사의 전국 영업점에서 고객으로부터의 모금 활동을 3월 15일부터 2011년 4월 14일(예정)까지의 기간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처나 구체적인 지원 방법에 관해서는 지금부터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해지구의 전력 확보에 협력하기 위해 당사 영업점에서 점포의 외관네온 소등, 주차장 조명의 감등, 점포 외부 간판의 소등, 영업시간의 단축 등을 실행하여 절전에 협력하고자 회사 전체가 계속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해지역이 하루라도 빠른 복구와 부흥을 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상